

거리마다 솔향기 더욱 짙어간다



문화국에서 봄철나무심기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요즘 평양시의 곳곳에 많은 소나무를 심어 거리의 풍치를 돋우고있다.

평양시에서는 지난해의 경험에 토대하여 관광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들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갔다.

가만, 내 한번 써보시

조선봉건왕조시기 명필로 이름났던 양사언(1517-1584)이 이웃나라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다.

한 부자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 가니 방 한편에 커다란 병풍이 세워져있었다.

주인은 양사언에게 이 병풍에 자기 나라에서 글씨로 유명한 사람이 글 쓴 것으로 골을 써준다고 하면서 그의 필체를 보고 가라고 하였다.

양사언은 이웃나라의 명필을 보게 된것이 다행한 기회로 여겨져 동의를 하였다.

얼마 안 있어 화구통을 든 명필이 찾아왔다.

그 사람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곧 골을 쓰려고 골분을 아교에 개면서 주인과 글감을 흥정하였다.

상당히 높은 값에 주인은 난처해하면서도 손꼽히는 명필의 골을 받는다는 기쁨에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였다.

이 광경을 보고있던 양사언은 글씨를 숭상하는 사람

들에게 모욕을 끼치는 일로 생각되어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 사람이 병풍에 골을 쓰기에 앞서 초지에 띠습으로 붓놀리는것을 보니 글체가 신중치 않아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다.

「가만, 내 한번 써보시」

이렇게 말하면서 팔을 걷은 양사언은 큰 붓을 하나 쥐고 골분을 찍어서는 길게 펴놓는 병풍에다 획획 뿌려나갔다.

「아니, 왜 이리시요?」

「아니, 저렇게 아교에 긴 골분을 마구 뿌려놓는 병풍을 이제 어디에 쓴단 말시오?」

주인과 명필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 어쩔줄 몰라 하였다.

양사언은 한결을 물러나서 마른 담벽이 비풍을 맞은듯 금분에 얼룩진 병풍을 이속

《글씨를 돈과 바꿀수 없다》

《가만, 내 한번 써보시》

이렇게 말하면서 팔을 걷은 양사언은 큰 붓을 하나 쥐고 골분을 찍어서는 길게 펴놓는 병풍에다 획획 뿌려나갔다.

「아니, 왜 이리시요?」

「아니, 저렇게 아교에 긴 골분을 마구 뿌려놓는 병풍을 이제 어디에 쓴단 말시오?」

주인과 명필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 어쩔줄 몰라 하였다.

양사언은 한결을 물러나서 마른 담벽이 비풍을 맞은듯 금분에 얼룩진 병풍을 이속

에서 나무선정과 구멍이파기, 물주기 등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소나무심기를 질적으로 끝내었다.

사시정철 푸르른 국수의 기상과 정서가 잘 살아나게 소나무군락을 조성하고 꽃관목을 많이 심어 그 주변을 잘 꾸리기 위한 사업도 원림설계의 요구대로 진행하였다.

중구역, 평천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에서도 새로 심은 소나무주변에 생태학적으로 잘 어울리는 진달래와 자연바위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국수로서의 품위가 살아나게 하였다.

서성구역, 모란봉구역에서는 영웅거리와 그 주변의 원림환경에 어울리도록 키 큰 소나무들로 가로수들을 조성

사화

력서의 발전에 기여한 강보(5)

안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력법에서는 황도(해결)요 적도(천축에 수직이면서 천구를 치나는 평면과 천구가 사귀어 생기는 원)요 하는걸 가지고 머리를 앓는다는네 그것들의 어느 요진통에서 수치를 하나 먼저 구해내고 그를 디딤돌로 삼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어떻게...》

《아...》

뛰어난 수재의 눈앞에서 천가지만가지의 복잡한 계산식들이 무질서하게 떠돌았다. 그러더니 점차로 류사한 계산식들끼리 구획을 지으면서 질서정연하게 가로세로 띠를 지었다.

한동안 일어나간듯 멍청히 서있던 강보의 얼굴에 회색이 어려졌다.

《선생님! 뭘... 뭘것 같소이다.》

《뭘것 같따구?》

강보는 신심에 넘쳐 부르짖었다.

《선생님께서 소생의 막혔던 생각을 띄워주셨소이다. 소생은 정말이지 요진통을 찾아낼 생각은 못했소이다. 듣고보니 동지날로부터 경과하는 날수에 따르는 영축적(현대천문학에서 중심차에 해당됨)을 정확히 구해내는 것이 요진통으로 뭘것 같소

이다. 영축적을 구해내어 그것을 디딤돌로 삼으면 영축가분(매일매일의 영축적의 차)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황적도를(황도와 적도간의 환산률) 같은것도 얼마든지 계산해낼수 있겠소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얻은 수치들을 군사들이 대오를 짓듯 종이에 칸을 긋고 부류별로 써놓으면 립성(수표)이 뭘것이니 그 립성만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마음먹은대로 세력서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것 같소이다.》

《허-난 영축적이니 황적도들이니 하는 말들은 듣고도 죽으라는 소리인지 살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 여간 자네가 승산이 있디나 뻔했, 뻔어.》

강보는 비로소 산천구경을 마련한 스승의 깊은 마음을 알수 있었다.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들게 짙은 안개로 자욱히 덮여있는 수식의 날바다우에서 땅 짙고 헤엄쳐나올수 있는 비결을 뒤통스승에게 어떻게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스승도 고맙고 어머니도 고맙았다.

미궁같은 력서의 세계에 신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아든 강보는 다음날부터 다시 금 력서를 손쉽게 수정할수

우리 민족의 상차림 풍습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식생활관습에서 독특한것은 상차림이다.

—독상차림

독상은 한사람이 식사할수 있도록 차린 음식상을 말한다.

독상은 존대한다는 뜻으로 주로 가장(할아버지, 아버지)이나 늙은이, 손님에게 차린다.

독상차림에서 밥그릇은 상을 받은 사람의 왼쪽에, 국그릇은 오른쪽에 그리고 간장, 고추장종지들은 상가운데 놓고 찬그릇들은 그 주변에 질서있게 놓는 다음 숟가락과 저가락은 국그릇옆에 놓았다.

접시에 담은 부식물의 가지수에 따라 3첩, 5첩, 7첩, 9첩반상이라고 한다.

반상은 하루 세끼 정상적으로 차리는 음식상이다.

반상에서 첩이란 뚜껑을

시력립성을 만들고있을 때 어머니 김씨도 그에 질세라 하얀 열두쪽명주천에다 한뫼뫼뫼 농가마을의 풍경을 수놓아갔다.

그의 눈에는 계절따라 달라지는 고향풍경이 환히 그려져있었다.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4계절로 나누고 거름을 실어내고 씨



를 보는 강보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수를 놓는 한뫼뫼뫼 자기가 만들려는 립성의 매칸마다에 정확한 수치를 구해내서 적어넣는 일처럼 여겨졌다.

그 한뫼뫼뫼뫼가 모여 웅근그림을 이루듯이 영축적같은 날수에 따르는 매 칸들의 수와 띠 품에 안았다.

《어머니!》

《내 아들이!》

김씨의 얼굴로도, 강보의 얼굴로도 뜨거운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아, 이런 뜻이 사람사는 보람이 아니겠는가...

강보는 아직은 20대 초엽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계산식을 발견하고 력서를 해마다 손쉽게 고칠수 있게 하는 수표를 만들어내었다.

이제는 세세년년 수시력립성의 덕택으로 절기가 똑바른 력서가 나올수 있게 되었다.

수시력립성은 내놓자마자 온 세상이 다투어 받아들였다. 강보가 만든 립성을 보고 이웃나라사람들은 이야말로 하늘을 놀래운 기적이면서 과연 고려는 문화의 대국이라고 부러워하였다.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세수시력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도서 《태릉통계》에 강보의 립성을 실었다.

한생을 력서를 일신하는데 바친 강보는 1343년에 력법의 비결을 고스란히 공개하는 《수시력립법령서》를 내놓았다.

유럽에서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영국의 수학자 오너에 의해서 4차방정식이 얻어졌으니 강보는 실로 세계적인 천문학자, 수학계의 거성이었다.

세상을 놀래운 과학적발명을 한 천재의 뒤에는 언제나 그를 이끌어준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법이다. (끝)

에로부터 우리 민족은 파스한 4월의 계절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생활풍습을 창조하고 계승하여왔다.

4월의 절기들에는 청명과 곡우가 있다.

청명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는 절기라는 뜻이다.

청명날 우리 선조들의 생활풍습에서 중요한것은 조상의 묘를 찾아보는것이였다.

이날에 조상의 묘를 찾은 사람들은 봉분을 손질하고 묘주변을 정리하였으며 제를 지내고 여러가지 민속음식을 먹었다.

청명날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취유떡, 청포묵침과 고사리, 곶비, 두릅, 참나물 등으로 만든 산나물무침을 들수 있다.

청명을 계기로 우리 선조들은 지붕기와 올라타손질을 비롯한 집수리를 진행하였다.

곡우는 곡식이 자라는데

유익한 비가 내리는 절기라는 뜻이다.

지난 시기 사람들속에서는 곡우때 오는 비를 매우 중시하였다.

곡우에 사람들은 벼, 조, 고구마, 참깨 등작물의 씨뿌림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는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때이므로 우리 선조들은 농사일로 바쁜날들을 보냈다.

청명, 곡우절기에 우리 선조들은 강하천과 바다에서 물고기잡이를 진행하였다.

특히 대동강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송어, 잉어, 누치와 같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처럼 우리 겨레는 오랜 옛날부터 4월 절기의 계절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생활풍습을 창조하고 련련히 이어왔다.

올해의 청명은 4월 4일, 곡우는 4월 19일이다. (본사기자)

한데 맞게 더 많은 소나무들을 심어 가꾸고있다.

평양시에서는 소나무의 사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는 한편 소나무심기를 년차별로 전망성있게 계획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송도지》(1648년)를 비롯한 력사자료에 의하면 《웃날의 바깥 동근것은 하늘을, 안의 모진것은 땅을 상징한 것이다. 즉 하늘이 땅을 둘러싼것을 형상하였다. 그리고 29개의 말발은 별의 위치를 형상하여 만들었는데 가운데 방이(추성)이고 그 옆의 28개의 말발은 하늘의 28수(별)를 본뜬것》이라고

하였다.

웃날이 가는 길은 동지, 춘분, 추분, 하지를 의미한다. 동지는 12절, 춘분, 추분은 각각 17절, 하지는 21절이다. 이 모든것을 거치면 한동이 난다.

웃날이는 옛날부터 우리 겨레가 즐겨하는 좋은 오락경기로서 그 력사는 참으로 오래다.

웃날이는 고대 국가의 하나였던 부여의 관직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다시말하여 웃날이의 도, 개, 걸, 웃(또는 솟), 모는 부여의 관직인 저(태지)가, 구(개)가, 우(소)가, 마(말)가 등 관직을 활용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웃날이에 쓰이는 웃날은 부여를 비롯한 고대조선사람들의 우주관을 반영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웃날이》(1648년)를 비롯한 력사자료에 의하면 《웃날의 바깥 동근것은 하늘을, 안의 모진것은 땅을 상징한 것이다. 즉 하늘이 땅을 둘러싼것을 형상하였다. 그리고 29개의 말발은 별의 위치를 형상하여 만들었는데 가운데 방이(추성)이고 그 옆의 28개의 말발은 하늘의 28수(별)를 본뜬것》이라고



웃날이 (조선봉건왕조시기 그림 중에서)

역사인물

이름난 서예가 한호

조선봉건왕조시기 서예가인 한호는 자는 경홍이며 호는 석봉, 청사이다.

1567년에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글씨를 잘 쓴것으로 하여 사자관의 벼슬도 하였다. 어려서부터 서예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있었으나 생활난으로 땅바닥이나 돌위에 글을 써보면서 재능을 연마하였다.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비상한 정열을 가지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름있는 서예가들의 글씨를 익히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마침내 서예의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그의 필적은 오늘날도 많이 전

해지고있는데 그중에서 널리 알려진것은 《천자문》이다. 이밖에 그는 서경덕의 비문을 비롯 많은 비문도 썼으며 그 글들은 비석에 새겨져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는 모든 글씨를 특히 행서, 예서를 잘 썼고 액자글씨가 더욱 뛰어났다.

옛 기록에 의하면 그의 글씨는 《성난 사자가 바위를 뚫어놓는듯, 목마른 천리준마가 샘물을 찾아 내달리는듯》 기백이 있다고 하였다.

한호의 글씨는 당시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다.

한호는 김정희와 함께 조선봉건왕조시기 서예가로서 생명을 이룬다. (본사기자)

미련한 건달군

옛날 한 건달군이 형벌을 받게 된 부자대신 매를 맞아 죽기로 하였다.

그런데 정작 판가에 끌려가보니 더욱 무심중이 났다. 건달군은 받았던 돈을 모두 형리에게 돌려주어 가벼운 매를 맞게 되었다.

형벌이 끝난 다음 부자를 찾아간 건달군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고마워하였다.

《형님은 진정 돌도 없는 저의 은인이십니다. 형님이 충분한 돈을 대주지 않았다면 전 아마 개죽음을 당했습디나.》